



E1 채리티오픈 국내파- 해외파 ‘격돌’

KLPGA 국내 두번째 대회 4라운드로 28일 개막
박현경 최혜진 이다연 임희정 등 국내선수 출사표
해외파는 LPGA 3인방 김세영 이정은 김효주 출전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에서 맨 먼저 투어를 재개한 한국어자프로골프(KLPGA)투어가 코로나19 이후 두번째 대회를 연다.

KLPGA투어는 28일부터 나흘 동안 경기도 이천 사우스 스프링스 컨트리클럽(파 72)에서 E1 채리티 오픈(총상금 8억원)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치른 KLPGA 챔피언십에서 방역과 대회 흥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해 자신감을 얻은 KLPGA투어는 E1 채리티 오픈을 계기로 본격적인 투어 정상화에 속도를 낸다는 복안이다.

이번 대회도 여전히 갤러리 입장이 허용되지 않고, 철저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는 건 KLPGA 챔피언십

과 똑같지만 경기는 4라운드로 치러진다.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와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가 주 무대인 해외파 선수들이 대거 참가하는 것은 KLPGA 챔피언십과 다르지 않다.

우승 경쟁이 국내파와 해외파의 리턴매치가 된 셈이다.

KL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잠재력을 입증한 2년 차 박현경(20)을 비롯해 최혜진(21), 이다연(23), 임희정(20), 이소영(23) 등이 국내파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출사표를 냈다.

작년에 임희정, 조아연 등 동갑 선구들의 그늘에 가렸던 설움을 씻어낸 박현경은 내친김에 2연승으로 초반 대세 장악에 나설 태세다.

박현경은 “작년 이 대회에서 5위라는 좋은 성적을 냈다. 그런 공략 전략을 잘 세우고, 퍼트가 따라준다면 원하는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미리 치른 2020년 시즌 개막전 효성 챔피언십 우승자 이다연은 박현경과 시즌 2승 경쟁이다. 작년 이 대회 정상에 올랐던 이다연은 2년 만에 우승컵 탈환에도 나선다. 이다연은 “우승했던 좋은 기억이 있어 자신감을 갖고 경기에 나선다”면서 “홀마다 핀 위치에 따른 적절한 공략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LPGA투어 일인자로 꼽히는 최혜진과 ‘무서운 신예’ 임희정, 강호의 면모를 되찾은 이소영과 작년 신인왕 조아연 등은 시즌 첫 우승에 도전한다. 2018년 사우스스프링스 컨트리클럽에서 율포유·레노바 챔피언십 정상에 올랐던 이소영은 코스와 공합이 잘 맞는다.

국내 그린 적응을 마친 해외파 선수들의 반격도 매서울 전망이다.

KLPGA 챔피언십에서 사흘 동안 선두를 달리다 최종일 우승 경쟁에서 밀렸던 배선우(26)가 눈에 띈다. 배선우는 2016년 이 대회에서 3라운드 내내 보기 하나 없이 20언더파 196타를 때려 우승한 좋은 기억을 지녔다. 196타는 당시 54홀 최스타 신기록이었다.

배선우는 “개인 최고 성적을 냈던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우선 10위 이내 진입이 목표지만 3라운드 이후에 승부를 걸겠다”고 말했다.

세계랭킹 6위 김세영(27), 10위 이정은(24), 13위 김효주(24) 등 LPGA투어 3인방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이들은 KLPGA 챔피언십에서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실전 감각을 빠르게 되찾는 모습을 보여 향후 호성적을 기대케 하고 있다. 이정은과 김효주는 최종 라운드에서 나란히 8언더파 64타를 몰아쳐 이번 대회에 기대가 크다. KLPGA투어 영구 시드권을 가진 안선주(33)와 이보미(32)도 출전한다. 연합뉴스



3라운드 MVP 상주 강상우 홈에서 광주를 상대로 결승 골을 터뜨리며 팀의 1-0 승리를 이끈 상주 강상우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3라운드 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K리그 인기, 빅데이터로도 입증

각종 채널 언급량 1년새 62% 폭증

지난해 관중 급증 등 큰 사랑을 받은 프로축구 K리그에 대한 관심이 소셜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나타났다.

26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따르면 소비자 트렌드 조사 기관인 한국인사이트연구소가 K리그 관련 소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각종 채널을 통한 언급량이 2018년 8만341건에서 지난해 13만263건으로 62.1% 증가했다.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의뢰로 진행한 이번 조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언론사와 포털사이트, 소셜 미디어, 각종 커뮤니티에서 ‘K리그’, ‘프로축구’ 등 관련 주요 키워드를 종합해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지난 한 해 언급량 자체가 가장 많은 곳은 뉴스(4만5809건)였지만, 인스타그램의 언급량이 300% 이상(2018년 7980건→2019년 3만3237건) 뛰어 높아진 관심을 반영했다.

중립적인 표현을 제외하고 ‘긍정어’와 ‘부정어’를 따지면 긍정어 비율은 2년 연속 60%대(2018년 65%·

2019년 69%)였다.

이슈가 된 주요 이벤트로는 ‘매진행렬’로 화제가 된 DGB대구은행파크 개장,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노쇼 논란’을 낳은 유벤투스(이탈리아)와의 친선경기, 후반 추가시간 ‘뒤집기 쇼’가 펼쳐진 강원FC와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6월 23일) 등이 있었다. 특히 유벤투스 친선경기(7월 26일)는 계획이 알려진 지난해 5월 말부터 후폭풍이 이어진 9월 말까지 1만4226건 언급됐다.

구단별로 보면 두터운 열성 팬층을 보유한 수원 삼성이 8만5545건으로 K리그1 최다 언급량을 기록했다.

선수 중엔 지난해 대구 돌풍을 이끈 세정야가 6570건으로 1위였고, 시즌 최우수선수(MVP) 김보경(6074건), MVP 후보였던 문선민(5349건)이 뒤를 이었다.

한편 2020시즌 K리그1 3라운드 네이비 생중계의 경기당 평균 동시 접속자 수는 2만9902명으로, 지난해 같은 라운드(2만2355명)보다 33.8% 올랐다. 연합뉴스

‘핵주먹’ 타이슨 vs ‘도끼 살인마’ 실바 맨주먹 경기 성사놓고 세계 시선 집중



최근 복귀를 선언한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54·사진)이 2000만 달러(약 248억원)의 거액을 제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격투기 전문 매체 ‘MMA파이팅’은 26일(한국시간) 타이슨이 맨주먹으로 싸우는 조건으로 2000만달러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전문학적인 액수로 타이슨을 유혹한 곳은 복미 격투기 단체인 ‘베어 너를 파이팅 챔피언십’(BKFC)이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맨주먹으로 경기를 벌이는 가장 자극적인 격투기 단체다. BKFC는 ‘도끼 살인마’ 반더레이 실바(44)에

게 타이슨과 맞붙는다면 1000만 달러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종합격투기 선수인 실바는 상대가 누구든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화끈한 경기를 펼치는 것으로 유명하다. 실바는 “그들(BKFC)은 내게 1000만달러 이외에도 페이퍼뷰(PPV·유료 시청)에 비례한 수익금을 제안했다. 나는 즉각 수락했다. 타이슨과의 대결이 성사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타이슨은 BKFC의 2000만달러 제안을 거부했다. 이에 데이비드 펠드만 BKFC 사장은 ‘MMA파이팅’과 인터뷰에서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새로운 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통산 전적 50승 2무 6패를 기록하면서 44차례나 KO를 뺏는 괴력을 발휘한 타이슨은 2005년 케빈 맥브라이드에게 6라운드 KO패를 당한 뒤 링을 떠났다.

하지만 타이슨은 자선 경기를 통한 복귀를 선언했다. 연합뉴스



MLB 탬파베이 훈련 시작… 최지만 곧 합류

최지만(29·사진)의 소속팀인 미국프로야구 탬파베이 레이스 선수단이 홈구장에서 훈련을 시작했다.

ESPN은 26일(한국시간) “탬파베이 소속 14명의 선수는 25일 미국 플로리다주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필드에서 훈련했다”고 전했다.

탬파베이 케빈 캐시 감독은 훈련 후 현지 매체들과 화상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선수들의 웃는 얼굴을 봐서 좋았다”며 “선수들은 캐치볼, 컨디셔닝 등 기본 훈련을 소화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 참여한 모든 선

수와 스테프는 발열 체크 등을 받았고, 훈련 도구는 살균 처리됐다. 선수들은 경기장 입장 시 마스크를 썼지만 훈련 도중엔 벗었다.

캐시 감독은 “일단 격일로 훈련을 한 뒤 상황을 살펴며 훈련 강도와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7월 개막을 목표로 삼은 메이저리그 각 구단은 조금씩 팀 훈련을 시작하며 기지개를 켜고 있다.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진 최지만은 이날 말 출국해 현지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novita
A KOHLER COMPANY

사랑하는 가족에게

노비타 비데 선물하세요 孝

이벤트 기간 : 2020.05.11 ~ 06.30



구입문의 제주대리점 064)758-0991
제주시 연삼로17(연동)

